

# 김일성 「현지지도」연구 : 1980 - 90년대를 중심으로

柳 浩 烈\*

##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4. 교육·문화 및 상업시설 「현지지도」   |
| II. 김일성 「현지지도」의 부문별 내용 | 5. 군부대 「현지지도」            |
| 1. 협동농장 「현지지도」         | 6. 공연 및 전시장 「현지지도」       |
| 2.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 III. 결론 : 김일성 「현지지도」의 특색 |
| 3. 건설사업현장 「현지지도」       |                          |

## I. 머리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첫째,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 모든 경제 활동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운영됨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토지개혁(1946.3)을 실시하고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기 시작하였고(1946.8) 제1차 1개년 계획(1947)을 수립하는 등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sup>1)</sup> 한국전

\* 자료조사실장

쟁이후 북한은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들의 대대적인 원조에 힘입어 급속히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1958년 중공군이 철수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전후복구사업을 대부분 완료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켰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근간으로하여 중공업위주로 산업화를 이룩함으로써 부의 평등을 이룩과 동시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들이 목표로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에 힘입어 초기에는 놀랄만한 속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고속 성장은 노동력의 동원이 한계에 부딪히고 과도한 작업시간, 숙련된 인력의 부족 그리고 비현실적인 목표 등 각종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점차 그 속도가 둔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생산목표의 재조정, 기업의 자율권 확대, 가격제도의 개편 및 블럭경제의 탈피 등 사회주의의 명령식 계획경제체제의 틀로부터 탈피하여 수정주의 또는 시장사회주의체제로의 변혁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sup>

사회주의 명령식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동맹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원조에 의존하여 전후복구사업을 마무리한 북한도 1950년대말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명령식 경제체제를 수정해나가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비해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하고 「현지지도」(on-the-spot guidance)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하여 계속하여 인민들의 노력을 동원하고 이를 부단히 경제활동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갔다.<sup>3)</sup>

북한의 경우, 전후복구시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중앙집권적 계획

1) 민족통일연구원 편,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연구보고서 91-13(1991.12), pp. 189-91.

2) 유호열,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23(1993.12), pp.243-44.

3)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p.38.

경제체제는 1950년대말 경직화된 관료주의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당시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에 새로운 방법론적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던 것이 김일성이 제시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였다.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60년 2월 5일부터 보름동안 청산리와 강서군 당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창안한 것으로 새롭게 조직되기 시작한 협동조합에서의 조직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업방법이다.<sup>4)</sup> 김일성은 현지를 방문하여 평범한 농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상 전반을 상세히 파악한 뒤 각급 단위의 당사업 형편을 분석함으로써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보름동안 현지에 머물면서 현지 실정을 참여관찰하면서 각종 회의를 주재한 끝에 2월 23일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강서군당사업지도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든 당, 국가, 경제기관 종사자들속에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집권체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채 생산 현지실정을 감안한 지도방식으로 자력갱생의 기본 구도하에 위에서 아래를 통제하고 지도하되 일반적 지도에 덧붙여서 개별적 지도를 가미하여 생산성 향상을 의도하는 것이다.<sup>5)</sup> 이처럼 현지지도를 통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수립한 김일성은 전국의 군과 리들을 이러한 방법에 의해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당지도요원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함으로써 오늘날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토대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4) 문성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되던 나날에,” 「인민들 속에서」 4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1-39.

5) 「김일성 저작선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152.

현지도도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결정적 변화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한 김일성은 이듬해인 1961년 12월 대안 전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과 기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새로운 체계도 수립하였다. 이 체계의 주요 내용은 「군중로선」에 입각하여 간부와 일반 노동자가 함께 생산에 참여하며 당위원회가 생산활동 전반을 관장하여 공장생산 지도체계에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sup>6)</sup> 오늘날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 기업소의 관리방식으로 남아있는 「대안의 사업체계」 역시 김일성이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10일간 머물면서 관계자들과 토의를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했던 김일성 「현지도도」의 산물이다.<sup>7)</sup>

이 글에서는 김일성의 1980년대 현지도도의 내용과 그 역할을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김일성의 통치력의 제반 특성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sup>8)</sup> 김일성은 현지도도를 통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및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정책집행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척을 독려해왔다. 절대 권력자와 몇몇 핵심 참모들에 의해 비공개로 정책이 결정되는 독재체제에서는 실제로 그 정책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sup>9)</sup> 이러한 측면에서 김일성의 「현지도도」에 대한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어떠한 통계 수치도 일절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

6) 김일성,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를 내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1.12.15).

7) 김태일, 「북한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22(1993. 12), pp.27-28.

8) 북한과 같은 특수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서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이론을 적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북한의 경제체제의 운영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역할이나 제반 정책의 정치적 함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원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Martin Staniland, *What is Political Economy? : A Study of Social Theory and Underdevelopment*(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5), p.193.

9) John M. Montias, "A Classification of Communist Economic Systems,"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Pittsburgh : University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75), p.43.

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직되고 폐쇄적인 북한체제가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다소나마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한 정치지도력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김일성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체제의 존립 가능성과 한계점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의 현지도는 그가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지속되어온 지도 방식이지만 이 글에서는 1980년 6차당대회 이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6차당대회가 열린 1980년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반면에 30여년을 절대적 통치자로 군림하던 수령의 나이가 어느덧 70이 가까와 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거 50년대, 60년대 전후 복구시기에 그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정력적인 활동은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김일성의 「현지도」 연구를 통해 한계점에 다른 북한사회를 노쇠한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하였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향후 권력승계를 목전에 둔 북한체제의 변화방향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김일성 「현지도」의 부문별 내용

### 1. 협동농장 「현지도」

김일성은 1980년대에도 협동농장에 대한 현지도에 무엇보다도 크게 비중을 두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1981년 5월 5일 강동군 하리 협동농장에 대해 현지도를 실시한 이후 1992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각급 협동농장을 방문하여 현지의 사정을 살피고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강령적 교시」를 하달하였다.<sup>10)</sup> 협동농장에 대한 현지

10) <표 1>이하 <표 6>까지 정리한 김일성의 현지도 내역은 조선중앙통신사가 매년 발간하는 「조선중앙년감」에서 조사하였다.

지도에 임한 김일성은 북한이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체농법」에 의한 영농의 과학화, 기계화를 조속히 달성하며 수리사업을 확충하여 모든 경작지를 관개지화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과학화를 위하여 품종을 개량하고 질소, 린, 카리 등 각종 화학비료를 증산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농사에 소용되는 트랙터, 모심기 기계 및 각종 영농기계를 쉬지 않고 창안해내고 생산해 낼 것을 지시하였다. 수리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갑문건설도 독려하였다. 부족한 농지를 확대하는 것도 김일성이 관심을 갖고 지도한 부분으로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sup>11)</sup>의 하나로 중요시하였고 산간지역이 많은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락밭」 건설을 「교시」하기도 하였다.<sup>12)</sup>

화학비료의 증산을 통한 곡물생산을 도모한 결과 지력이 쇠퇴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산물의 감산을 막기위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농토의 「흙갈이」 사업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0년 11월 김일성은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 현지지도차 방문하여 농업부문관계자들과 함께 농업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해년도에 특별히 농사가 잘되지 않은 원인이 땅에 대한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지력을 높이지 못한데 있다고 단언적으로 지적한바 있다.<sup>13)</sup> 김일성은 “「흙갈이」를 하여 지력을 높여야 곡물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이듬해 봄까지 모든 옥수수밭에 객토사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봉화협동농장의 「일군」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해 객토작업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현지 토양에 맞는 객토 작업방법에서 작업분량, 동원해야할 인원수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후에 “나(김일성)는 옳다고 생각한 문제는 끝까지 해내고야마합니다, 지금까지 하자고 마음먹고 달라붙어 해결하지 못한것이

11) 김일성은 6차당대회(1980.10.10)에서 경제사업 10대 부문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바 있는데 간석지개발의 목표는 총 30만 정보에 이른다. 통일원 편, 「'92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p.158.

12) 「다락밭」 조성에 대해서는 이우홍, 「가난의 공화국」(서울: 통일일보사, 1990), pp. 39-49.

13) 리승남, “〈전당, 전민, 전군이 떨쳐나서 흙갈이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인민들 속에서」 5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91-104.

없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논밭에 흙갈이를 하여 지력을 높여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흙갈이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흙갈이방식상학을 준비한데 나가서 정보당 흙을 몇톤 내면 몇센치미터 두터이로 펴수 있겠는가를 확인하여보았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현지도를 통해 무엇을 지시하고 어떻게 그를 달성할 것인지를 밝혀 주었다. 그리고 이처럼 현지도를 통해 지시한 사항은 이내 전국민들을 상대로한 특별명령으로 하달 되곤 하였다.

김일성은 객토작업의 필요성과 구체적 시행방법이 결정되자 “전당, 전민, 전군이 펼쳐나서 흙갈이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는 내(김일성)가 이 회의에서 결론을 하면 인차 흙갈이전투에 전당, 전민, 전군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흙갈이전투에는 밥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전농토의 객토사업과 같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짧은 시간내에 완성하도록 총동원령을 하달 하였다. 김일성의 「전당, 전민, 전군」이 나서서 「흙갈이전투」를 벌이라고 지시하자 현지도에 나선 강동군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물론 노동자, 사무원 그리고 가정부인들까지 모두 동원되어 전농토에 대한 객토작업에 나섰다.

김일성은 곡물의 증산과 더불어 1980년대 인민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곡물이외의 작물 생산을 증대할 것도 지시하였다. 사료용 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어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것은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고기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고 닭이나 오리등 가금류의 사육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고기와 알을 부식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온실재배에 따른 채소류의 증산도 김일성의 협동농장 현지도에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약초, 담배 등 기호품 작물의 생산과 그 처리 능력의 증대도 「강령적 교시」를 통해 강조하였다.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지을 것을 줄기차게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화학비료, 농약을 비롯한 각종 영농물자를 제때에 더많이 공급할 것을 독려했다. 과학, 기술적으로 영농할 것을 지시하면서 육종사업을 강화하는 등 품종개량사업

에도 많은 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특히 각급 농업과학원이나 농업시험장,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현지지도할 때 두드러졌다. 종합적 기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농기계 생산과 보급확대를 지시할 때는 이미 생산된 각종 벼수확기등 농기계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각급 연구소를 방문하여서는 북한의 농업생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지침이 될 「교시」를 하달하기도 하였다.

〈표 1〉 협동농장 현지지도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남 강동군 하리 협동농장(5.5)</li> <li>• 강동군내의 협동농장(8.30)</li> <li>• 삼석구역 도덕협동농장(9.11)</li> <li>• 평남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9.22)</li> <li>• 평남 평원군 송석협동농장(9.22)</li> <li>• 7호농장(10.9)</li> <li>• 농업과학원 룡성시험장, 농기계화연구소(10.11)</li> </ul> |
|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국남새공장(4.25)</li> <li>•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4.25)</li> <li>• 농업과학원 룡성시험장(9.28)</li> <li>• 삼석구역 도덕협동농장(10.5)</li> </ul>   |
| 1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협동농장(4.24)</li> </ul>  |
| 19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원군 삼봉협동농장(9.14)</li> </ul>  |
|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북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 등 국영농목장, 남새공장 및 청진시 수산업기지(6.10~30)</li> </ul>   |
| 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과학원시험장(8.30)</li> <li>• 평양 룡성구역 화성협동농장(9.1)</li> <li>• 청산협동조합(9.2)</li> <li>• 룡성구역 화성협동농장 및 농업기계화연구소(10.1)</li> <li>• 농업과학원 가금공학연구소(10.2)</li> <li>• 개천군 보부협동농장(10.22)</li> </ul>                                  |
| 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석구역 협동농장(9.3)</li> <li>•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10.22)</li> </ul>  |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석협동농장(2.2)</li> <li>• 삼석협동농장(9.7)</li> </ul>  |
| 19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10.13)</li> <li>• 강동군 봉화협동농장(11.27)</li> </ul>   |
| 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석구역 협동농장(3.20)</li> <li>• 함남도내 닭·오리공장, 은실남새공장 및 수산업기지(7.10~8.5)</li> <li>• 온성군 왕재산 협동농장, 농업과학원 경성 분원시험장 및 경성군 일향협동농장(8.20~30)</li> <li>• 함남 정평군 봉대협동농장 및 락원군 서중 협동농장(8.31~9.6)</li> </ul> |

## 2. 공장·기업소 「현지도」

김일성은 협동농장에 대한 현지도 못지않게 공장·기업소등에 대한 현지도도 활발히 하였는데 1980년대에도 <표 2>에서와 같이 매년 5, 6곳의 주요 공장·기업소들을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김일성이 공장·기업소를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실시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우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을 지시한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기술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협동농장이나 농업연구소등을 방문하여 곡물생산을 증대할 것을 독려할 때 화학비료의 사용을 지시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학공장에서 비료의 증산을, 그리고 주민들의 의류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섬유인 비날론 등의 생산을 늘릴 것을 지시하곤 하였다.

김일성은 각 공장·기업소등을 방문하여 생산을 늘릴 것을 지시하는데 이때 김일성은 「관계부문일군협의회」를 소집하여 제품생산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 증대를 위한 방

법을 제시하곤 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료와 자재의 공급에서부터 수송, 배분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체 공정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 일반 기업소 단위에서 생산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이중 원료채취부문에서부터 제품의 배분까지 어느 한 단위에서도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계획에도 없는, 그리고 계획을 능가하는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관된 공급체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관된 경제활동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반면에 김일성의 지시는 이러한 체계를 뛰어넘어 목표로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sup>14)</sup>

김일성은 1981년 10월 26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평북 공업부문 시찰에서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재를 비롯한 원료·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김일성이 현지지도를 통하여 공장·기업소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특별지시는 1991년 김일성의 집중적인 함경남·북도 공업부문을 현지지도할 때도 나타났다.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실시할때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공장·기업소 대표들을 두루 소집하여 총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는 특징이 있다. 1990년 홍남비료공장은 설비를 짧은 시간내에 현대화해야할 문제에 직면하였다.<sup>15)</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함경남도 「경제부문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였다. 김일성의 판단에 의하면 공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대형압축기 6대가 필요하므로 이 대형압축기 6대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룡성총국은 과거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해도 대형압축기 1대를 생산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안에 6대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과

14)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지시가 있어야만 지출할 수 있는 특별 비축 물자인 「1호물자」가 있어 비상사태나 특수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15) 김광수, “룡성로동계급에게 주신 믿음은 기적을 낳았다,” 「인민들 속에서」 51, pp. 66-72.

업이 아닐 수 없었다. 김일성은 「관계부문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무들, 우리가 룡성기계총국을 도와줍시다”란 말 한마디와 함께 이같이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일성은 룡성기계총국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지시하면서 두가지 특별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종업원 쉼기대회에서 노동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이들의 열의를 발동시켜 작업에 임할 것과 둘째, 대형소재생산과 「협동생산조직」은 어떻게 하고 막대한 양의 자재와 「협동품」은 어디서 어떻게 「생산보장」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지도해 준 것이다. 일단 이렇게 목표와 방법을 지시한 연후에 김일성은 「관계부문일군」들에게 “나와 약속한 것은 꼭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과업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였다.

현지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위해 김일성은 여타 관련 기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명령하였다. 김일성은 “...금속공장들에서 압축기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대주는것을 비롯하여 전국이 도와주어야 합니다”라고 지침을 하달하면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로 강력한 「지도소조」를 구성하여 현지에 보내주고 대형압축기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협동생산품」들을 일시에 풀어주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극히 짧은 기간에 전투를 벌리는 조건에서 대형공작기계공장에서도 대상설비를 맡아 생산하도록 해주는 등 전국이 룡성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일성의 현지도에 따른 특별 지시의 결과 룡성기계총국의 종사자들은 물론 은퇴한 노기능공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작업에 참여하였고 수많은 지원물자와 격려의 편지 및 각종 위문공연이 줄을 이어 이들 작업현장의 노동자들의 작업을 격려, 고무하여 작업의 조속한 완결을 지원하였다.

〈표 2〉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 년 도  | 현 지 지도   |
|------|--|
| 19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포제련소(5.22~23)</li> <li>• 남포 대안중기계종합공장(5.23)</li> <li>• 홍남비료연합기업소(8.16~20)</li> <li>• 평양전구공장(8.26)</li> <li>•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9.22)</li> <li>• 평북공업부분 시찰(10.2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29일 공장</li> <li>— 락원기계공장</li> <li>— 8월 9일 공장</li> </ul> </li> </ul> |
|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리자동차 종합공장(3.19)</li> <li>• 평양시 애국의약품 포장재 공장(5.5)</li> <li>• 함경남도 인민경제 여러부문들 사업지도(8.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룡성기계연합기업소</li> </ul> </li> <li>• 동평양기계공장(9.8)</li> </ul>   |
| 1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해제철소(4.18)</li> <li>• 2.8 세멘트공장(4.19)</li> <li>• 〈승리〉호 트랙또르공장(7.5)</li> <li>• 2.8 비날론연합기업소 및 단천지구 광산, 단천제련소(7.6~10)</li> <li>• 성진제강소, 검덕광업종합기업소, 단천마그네사공장(8.22~24)</li> </ul>  |
| 19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리자동차 종합공장(4.26)</li> </ul>   |
|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책제철연합기업소, 5월 10일 공장 라남계약공장 및 청진조선소(6.10~30)</li> </ul>   |
| 19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6.20)</li> <li>•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및 청진화학발전연합기업소(7.1~13)</li> <li>•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12.29)</li> </ul>   |
| 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대에국늄창공장(3.9)</li> <li>• 승리자동차 종합공장(3.31)</li> <li>• 금성 트랙또르 종합공장(9.2)</li> <li>•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및 6월 6일 차량연합기업소(9.24)</li> <li>•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 및 안주 아닐론 방적공장(10.23)</li> </ul>   |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8 | • 정주 전진호 트락또르 조립공장(9.3)  |
| 1989 | • 상원 세멘트련합기업소(4.2)<br>• 승리자동차 종합공장(9.10)<br>• 순천 비날론련합기업소(10.9)  |
| 1990 | • 천리마 제강련합기업소 및 5월 18일 대형 단조공장(10.9)<br>• 5월 10일 공장, 함북조선소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및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등 함북도내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8.16~9.3)           |
| 1991 | • 홍남비료련합기업소(7.10~8.5)<br>• 무산광산련합기업소(8.20~30)<br>• 룡성기계총국, 6월 1일 전기기구 종합공장(8.31~9.6)<br>•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및 2.8 비날론련합기업소(11.27~12.7) |

### 3. 건설사업현장 「현지지도」

1980년대 김일성은 〈표 3〉에서 보듯이 서해갑문을 비롯한 대규모 갑문 및 간석지 공사, 만수대의사당과 같은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 공사, 단천 제련소건설장과 같은 공장건설 공사, 그리고 도시 및 도로건설공사를 벌이는 현장등을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장의 위치 선정에서부터 건설방식과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까지 총체적인 지도로 이어진다.

황해남도의 9·18저수지는 바다를 막아 건설한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건설사업은 김일성의 건설사업현장에서의 현지지도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1979년말 김일성은 청단군과 연안군내의 해안농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지역이 장마때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이내 담당 「일군」들을 대동하고 바다쪽 현장으로 나아가 지도를 펴놓고 현지지형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실제로 현지지형을 육안으로 살피고 앞바다의 깊이, 밀של물의 차 그리고 그 지대에 이미 조성되어있는 저수능력과 물길의 통수

능력들을 알아본 연후에 바다에 「물주머니」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연후에 「물주머니」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공사의 선후차까지, 공사의 전반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후 건설이 시작된 다음 공사진척상황을 살피면서 공사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공법을 가르쳐주고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보급해줄 것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 주었다. 건설작업의 마지막 관문인 배수갑문 조달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김일성은 “배수갑문이 걸렸단 말이지요”라고 되뇌이면서 배수갑문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약속하였다. 곧이어 배수갑문들이 전량 현장에 도착하였고, 대형변압기와 「수문권양기」, 대형자동차들이 도착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공사장 책임자들은 김일성의 지도와 보살핌으로 5년은 걸릴 작업이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었다고 감격스러워 했다.<sup>16)</sup>

김일성의 현지도는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현장에서도 예외없이 이어졌다. 1980년 4월 당시 최고인민회의는 장소가 협소한 만수대의사당 대신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은 만수대의사당을 새로이 개축할 목적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 현지도를 실시하였다.<sup>17)</sup> 만수대의사당이 자리잡은 주변의 도로중 어느 것은 없애고 어느 것은 새로 내며 어느 길은 어떻게 넓혀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지도하면서 의사당의 개축은 국가의 존엄과 관계가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였다. 1960년에 지어진 만수대의사당 건물 내부의 회의실을 둘러본 김일성은 층이 낮고 폭이 좁아 답답하다고 지적하고 대의원석 자리를 잘 만들뿐만 아니라 의자사이의 거리도 넓혀주고 「앞상」도 놓아주어 글을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축해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결국 이날 의사당 현장을 둘러본 김일성은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이 모여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곳에 걸맞게 웅장하게 확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의사당 확장개수공사가 곧바로 시행되었으나 2년후 의사당 개축공사현장을 다시 찾은 김일성은 미진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결함

16) 서관희, “바다에 생긴 저수지,” 「인민들 속에서」 4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p.1-8.

17) 리명철, “〈만수대의사당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대기념비적건물입니다〉,” 「인민들 속에서」 47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94-99.

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김일성은 의사당의 내부구조와 설비들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천정의 높이가 여전히 낮고 천정에 걸린 「무리등」이 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회의실을 내리누르는 듯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실 길이를 좀 더 넓히고 대의원의자사이도 더 넓혀 토론하러 연단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방청석의 수를 2천석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대표들을 방청자로 광범위하게 참가시켜 국사를 함께 의논하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덧붙여 기존건물의 설비와 자재를 버리지 말고 모두 회수 이용할 것도 지시하였다. 이후에도 김일성은 부속건물과 휴게실이 불필요하게 많으니 이를 적게 배치하고 건물 내외부를 주민들의 기호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최고의 수준으로 건설할 것 등을 일일이 지시하였다. 여타 건설현장에서의 현지도 때와 마찬가지로 만수대의사당 개축 공사 때에도 김일성은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할당해주고 고급석재와 희귀한 나무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들을 확보해줌으로써 결국 1894년 10월 김일성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의사당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김일성의 건설현장 현지도에서 중요한 정형중의 하나는 공장건설현장에서의 지도이다. 비료생산은 북한이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고리중의 하나인데 1991년 7월 김일성은 1927년에 설립된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대화, 대형화하는 작업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지도하였다.<sup>18)</sup>

김일성은 당시 정무원 총리인 연형무를 홍남비료공장 현지로 불러내어 공장의 현대화작업을 진두지휘하도록 명령하였다. 현지에서 김일성이 지시한 사항은 “...이번에 마음먹고 달라붙어 결사전을 벌려서라도 비료문제를 꼭 풀어야 합니다”로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내용이었다. 김일성은 비료공장 확장공장에서 절실한 문제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김책체철련합기업소, 룡성기계총국을 비롯한 대상설비와 자재를 맡은 기업소들이 홍남비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들 연관된 기업소들에서 대상설비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울 것을 강조하면

18) 연형무, “〈내 몸은 비록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홍남에 가 있습니다.〉 「인민들 속에서」 5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2-16.

서 홍남비료공장의 건설공사를 그해 9.9절까지 끝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고압관과 고압발브를 비롯한 일부 특수 설비들과 자재를 수입하여야 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산재한 방대한 규모의 설비가공과 구조물건설공사를 그 짧은 기간안에 완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요령주의를 없애고 무슨 일에서나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사상적 각오를 다지며 노동계급의 창조적 열의와 힘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 정무원에서는 다른 설비생산을 미루더라도 홍남비료의 대상설비부터 먼저 생산하도록 철저한 방침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특히 설비생산에서 특수장재가 부족함을 깨닫고 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담당자들을 현지로 소환하여 이들 기업소들이 필요한 자재를 책임지고 공급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김일성의 현지지도가 실시되면서 지명 받은 성진을 비롯한 각급 공장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대상설비와 자재를 홍남비료에 우선적으로 생산, 공급하였고 함경남도 각 시, 군들에서 매일 수천명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여해 노력지원을 담당하였다.

정무원 총리를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김일성은 각급 공장·기업소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속히 공급할 것을 독려했고 노동자들은 수령이 현장에 있음으로 해서 혁명적 열의를 다해 전투적으로 건설사업에 매달리게 되었다. 1991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김일성은 함흥에 머물면서 총리의 사업보고를 매일 받는 등 현장에서 공장건설의 조기 달성을 진두 지휘함으로써 북한의 실정에서 보통 몇년은 족히 걸릴 현대화 건설사업을 불과 수개월안에 마무리 지었다.<sup>19)</sup>

19) 북한이 「주체적」으로 건설했다고 선전하는 공업, 광업, 건설 등 모든 산업부문의 질은 형편없이 낙후되고 불량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우홍, 「어둠의 공화국」(서울: 통일일보사, 1990).



〈표 3〉 건설사업현장 현지지도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포 갑문·남포 구역 와우도 주택거리(5.22~23)</li> <li>• 평양시내 문수거리 건설장(8.26)</li> <li>• 맥전갑문 건설장(8.30)</li> <li>• 평남 청남구 탄부 주택건설(9.22)</li> <li>• 평남 간석지 개간(9.22)</li> <li>• 인민대학습당(9.26)</li> <li>• 신의주시내의 중요건설대상(10.26~27)</li> </ul>  |
|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시내 대기념비적 창조물 건설현장(4.1)<br/>— 주체사상탑·개선문·모란봉경기장·인민대학습당</li> <li>• 함남 단천제련소 건설장 및 신단천 건설부지 공사장(8.19~9.1)</li> <li>• 봉화갑문(10.5)</li> </ul>   |
| 1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남 아널론방적공장 건설부지 및 청천강 제2화력발전소 건설부지 시찰(1.26)</li> <li>• 봉화갑문 준공식(4.13)</li> <li>• 황해도 송림항 건설과 송림시 건설현장(4.18)</li> <li>• 남포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확장부지(4.24)</li> <li>• 함흥합성 고무공장 건설부지 및 함흥시 건설현장(7.6~10)</li> <li>• 김책항, 김책시, 단천제련소 건설장, 단천항, 신단천 건설장(8.22~24)</li> <li>• 〈충성의 다리〉(대동강) 개통식과 평양 원산 고속도로 및 송림 황주쪽 직선도로 건설장(9.6)</li> </ul> |
| 19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포갑문 건설장(4.18)</li> <li>• 락랑다리·락랑도로 개통식(9.16)</li> <li>• 만수대의사당 준공(10.11)</li> </ul>   |
|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대 남리부락(8.11)</li> <li>• 남포 갑문건설사업(9.19)</li> </ul>   |
| 19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갑문 준공식(6.24)</li> <li>• 순천 비날론련합기업소 및 순천갑문(10.15)</li> </ul>   |
| 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룡성구역 화성동, 대성구역 안학동 살림집건설장(4.5)</li> <li>• 평양 지하철도 제4계단 준공식(4.10)</li> </ul>  |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 광복거리, 5월 1일 경기장 및 평양국제 영화회관 건설장(4.4)</li> <li>• 룡라다리 및 금릉동굴 개통식(9.3)</li> <li>• 청춘거리 준공식(9.3)</li> <li>• 5월 1일 경기장 건설장(9.3)</li> <li>• 순천 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장(10.8)</li> </ul>  |
| 19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녕원발전소 건설장(3.25)</li> <li>• 5월 1일 경기장 준공식(5.1)</li> <li>• 광복거리 대도로, 교예극장, 량강호텔, 서산호텔, 청년호텔 준공식(5.1)</li> <li>• 만경대학생소년극장, 5천세대 살림집 봉사망들 준공식(5.2)</li> <li>• 평양국제 영화회관, 청년중앙회관, 동평양 대극장 및 양각도 축구 경기장(5.18)</li> </ul> |
| 19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리원 카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장(11.28)</li> </ul>   |
| 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시 궤도전차 제1단계 건설장(4.13)</li> </ul>  |

#### 4. 교육·문화 및 상업시설 「현지지도」

김일성은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또는 건설사업소 등 생산현장뿐만 아니라 <표 4>에서 보듯이 각종 교육, 문화 및 상업시설들에 대한 현지지도도 다방면에 걸쳐 실시하였다. 평양의 대표적인 유원지 대성산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김일성의 지도행태의 한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sup>20)</sup> 대성산은 평양의 대성구역에 있는 계곡이 깊은 산으로서 고구려 때부터의 오랜 역사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김일성은 일찍부터 이곳을 유원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세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지 않아 각종 유적을 복원하고 가꾸어도 만족할만한 모습의 유원지로 발전하지 못하자 김일성은 1958년부터 줄기차게

20) 최문선, “산수를 겸비한 인민의 유원지 대성산,” 「인민들 속에서」 50, pp.126-38.

이곳에 있다고 전해져오는 99개의 못을 찾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결국 1985년 10월 대성산 현지를 방문한 김일성은 대동강물을 대성산에 끌어올려 인공폭포를 만들고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그가 생각하던 산과 물이 있는 유원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단 대동강의 물을 인공적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이 나자 여러단의 양수장을 건설하고 양수장의 물을 양수기로 퍼올리는 사업계획이 작성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전기는 미림갑문이나 봉화갑문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만 엄청난 자재와 설비, 노동력이 소요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1989년 8월에 가서야 착수하게 되었다. 일단 공사에 착수하게 되자 김일성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물길의 모양과 폭, 주변의 풍치등 세밀한 부분까지 지도해주고 사계절 물이 흐르게 함과 동시에 각종 사슴과 노루를 방목할 것도 아울러 지시하였다. 그리고 여타 현지지도 사업에서와 같이 대성산 유원지 건설사업에도 모든 평양시민들이 나설 것을 명령하였다. 특히 대성산물길공사에는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공사에 필요한 주철관과 시멘트, 양수설비들을 즉시 공급해주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기관 정무원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김일성의 지시대로 최단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감독하였다. 공사를 시작한지 3개월만인 11월 9일 대성산 계곡에 흐르는 물줄기를 보고 김일성은 대단히 만족해하며 이어서 전쟁때 파괴된 광법사도 원상대로 복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물길을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물이 맑지 못하고 끝까지 이어지지 못함을 본 김일성은 바로 다음날 다시 대성산 유원지를 찾아 맑아진 물과 물길 끝까지 이어진 물줄기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철저한 지도를 폈다.

김일성은 때때로 백화점과 같은 상품유통시설을 현지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상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품공급체계를 새로이 세워 주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1982년 4월 6일 그의 70세 생일을 맞아 개장한 평양제1백화점을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sup>21)</sup> 백화점을 찾은 김일

21) 김옥심, “인민에 대한 봉사성을 더욱 높이도록,” 「인민들 속에서」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115-124.

성은 각층에 진열된 물품들의 품질과 공급량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김일성은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이에 맞게 상품공급을 새롭게 조직할 것도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백화점 진열대에 놓여진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릇들을 살펴면서 큰 냄비는 좀 투박해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평을 하면서 “알루미늄그릇은 뜨거운것을 담으면 다루기가 불편하고 기름기가 묻으면 잘 씻어지지도 않습니다. 알루미늄으로서는 밥가마와 냄비, 주전자 같은것이나 만들고 다른 그릇들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기그릇, 법랑그릇이 생산되고 있으니 구태어 ‘상점안이 빛이 나도록’하기 위하여 알루미늄그릇을 진열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제는 공장에서 「늄그릇생산지표」를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일러주면서 다만 군대용은 계속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진열된 사기그릇들을 살펴보면서도 밥을 큰 사발에 담아먹지 말고 공기에 담아먹을 것 등을 「교시」함으로써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식생활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학용품 매대에서는 김일성은 학용품등 아동 상품의 포장색깔을 밝게하고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여타 상품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고 모양도 낙후되었다고 타이르면서 보다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시대감각에 맞게 개선하도록 현지도도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도 김일성은 문화재를 보존전시하는 전시장과 역사유적지들을 돌아다니면서 현지도도를 실시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여관, 호텔, 기념품매장 등 각종 부대시설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해주었다.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나 병원등을 방문하여 현지도할 때도 각급 시설에 대해 그 설립목적을 일깨워주고 그에 따른 건설공사 및 내부시설공사들에 대해서 각종 지도를 하였다.

1989년 5월 준공된 만경대학생궁전도 김일성이 만경대지구에 새로운 현대적인 거리를 형성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건립된 교육시설이다. 다만 건물의 실질적인 설계와 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뜻을 헤아려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여 건설하였으므로 김일성은 단지 건물 전반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해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sup>22)</sup>

〈표 4〉 교육·문화 및 상업시설 현지지도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향산 국제친선 전람관, 국제려관, 려관상점, 려관식당, 물품관 매대 및 문화유적(4.25~27)</li> <li>• 남포 와우도유원지(5.22~23)</li> <li>• 보통 강변에 신설된 빙상관, 청류관(12.6)</li> </ul> |
|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제1백화점, 만경대유회장,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4.6)</li> <li>• 평양기계대학(5.5)</li> </ul>   |
| 1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원(3.23)</li> </ul>   |
|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제1고등중학교(2.26)</li> <li>• 평양고려호텔(8.9)</li> <li>• 만경대물놀이장(8.11)</li> <li>• 대성산혁명렬사릉(10.4)</li> </ul>                                 |
| 19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향산향산호텔(5.2)</li> <li>• 대동강변 김만유병원(6.28)</li> </ul>  |
| 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및 전승혁명사적관(3.9)</li> <li>• 평양지하상점(4.25)</li> </ul>  |
| 19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력포구역 공명왕릉(4.2)</li> <li>• 인민경제대학 및 김일성대학(6.21)</li> </ul>  |
| 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수대창작사(2.11)</li> <li>• 평양시 대성구역 광범사(2.12)</li> <li>• 만경대학생소년궁전(4.13)</li> </ul>   |

22) 김정은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는 김일성에게 평양국제공항, 아동병원, 텔레비죤회관 그리고 3대혁명전시관 등 4개 건물만 더 지으면 공공건물은 더 짓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보고하였다. 윤병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궁전입니다〉, 「인민들 속에서」 50, p.242.

## 5. 군부대 「현지도」

1980년대 김일성의 군부대 「현지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 4월 25일 북한군 창군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방문 현지도한데 이어 다음해 같은 날 창군 51주년 기념일, 그리고 1984년 역시 같은 날 창군 52주년을 기념하여 구분대를 방문한 것이 「조선중앙년감」 기록에 나와있는 전부이다.<sup>23)</sup> 인민군 구분대를 방문한 김일성은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정일과 부주석, 인민무력부장 및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비서, 정무원 부총리, 각 도당책임비서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부의장등을 대동하고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이들과 함께 구분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을 둘러보았다. 이들 구분대의 군사훈련상황을 살핀 연후에 이들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들을 「현지도」의 형태로 「강령적」으로 지시하였다.

김일성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현지도를 실시했던 1979년 9월 18일에는 이들 구분대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정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이들의 기본 자세나 훈련내용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더욱 더 전투정치훈련에 매진하도록 당부하였다.<sup>24)</sup> 또한 군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항상 낙천적으로 생활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주의건설소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텔레비존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교양」수단들과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이들 군인들의 전투기술기재들을 돌아본 연후에 이들로 하여금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군대생활을 영위하며 전투훈련을 강화하여 자기의 무기와 기술기재에 정통할 것을 「현지도」를 통해 지시하였다.

23) 실제로 김일성부자는 1989년에도 4월 25일 인민군 구분대를 방문하여 현지도를 실시하였으나 「년감」에는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들 부자의 군부대 현지도에 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24)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0」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0), pp.86-87.

〈표 5〉 군부대 현지지도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2 | • 조선인민군 구분대(4.25) |
| 1983 | • 조선인민군 구분대(4.25) |
| 1984 | • 조선인민군 구분대(4.25) |

### 6. 공연 및 전시장 「현지지도」

「조선중앙년감」은 김일성이 각종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것을 「현지지도」로서 매년 기록하고 있다. 특히 70회 생일 이후 1983년과 1984년, 김일성은 북한의 지도부 인사들과 해외 방문객들과 함께 각국 예술단이 김일성의 공적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공연들을 감상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각종 상품전시회에 참석한 행사에서의 「현지지도」는 보다 교시적이고 실질적인 지도의 형태를 띄고 있다. 김일성은 〈표 6〉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에도 현지지도의 일환으로 신형 자동차들을 살펴보거나 각종 신형 농기계등도 직접 돌아보곤 하였다. 김일성은 그밖의 인민소비품들도 새로운 제품들을 중심으로 금수산의사당이나 각 공장·기업소, 또는 제품제작 연구소등에 진열해 놓고 제품들의 품질들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1986년 2월 김일성은 경공업과학원 연구원들이 제작한 비날론고급옷감 천을 보아주겠으니 그 견본품들을 금수산의사당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sup>25)</sup> 「관계 일군」들은 회의장옆의 휴게실에 가져온 제품들을 진열해놓고 김일성의 지도를 기다렸는데 이 제품들은 앞서 1982년 2월 「과학기술부 문일군협의회」에 참석했던 김일성이 비날론섬유가공에서 드러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비날론제품의 가지수를 더 많이 늘려보라는 지시를 받고

25) 리주용,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인민들 속에서」 47, pp.72-82.

그동안 연구한 결과 생산해낸 신제품들이었다. 휴게실내 전시장에 나온 김일성은 각종 제품들을 살펴보는 도중에 「저아세탈비날론」에 아닐론을 30프로 섞어 짠 양복천을 보더니 아닐론은 양복천을 짜는데 섞기는 아깝다고 하면서 아닐론이 모자라 뜨개옷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아닐론은 천짜는데 쓰지 말고 뜨개옷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라고 「교시」하기도 하였다. 「남자뜨개옷」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한 김일성은 질책보다는 오히려 그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공급량을 늘려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비날론천으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순천비날론공장 건설을 확고하게 추진할 것도 아울러 지시하였다. 김일성의 「현지지도」 이후 경공업과학원은 새로 개발한 비날론털실을 사용하여 「뜨개옷」제품들을 생산하여 이듬해인 1987년 4월 이들 제품들을 다시 김일성 앞에 진열하여 평가지도를 받았다. 김일성은 이들을 직접 살펴본 끝에 이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비날론연구사업에 필요한 중간시험공장을 건설해주고 연구집단도 새로 조성해주는 등 지원을 베풀었다.

한편, 김일성은 「현지지도」의 형태로 농업기계화연구소등에서 제작한 농기계들을 비롯한 각종 기계류들도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면서 개선해 나갈 대책들을 제시해 주곤 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지방의 경제사업을 현지지도하러 나갈 때 농기계제작사업도 함께 살펴보곤 하는데 농기계는 농민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대신하는 기계라고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였다. 인민경제, 특히 농업부문을 현대화하는데 원동기같은 기초적인 동력기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김일성은 1971년 4월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원산수산기계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sup>26)</sup> 「물질기술적」 토대가 매우 빈약한 이 공장을 원동기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통해 원동기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기술자들, 그리고 필요한 견본품까지 제공하고 원동기 생산에 편리하도록 「공장지도체계」도 새로이 수립해주었다. 이 공장에서 원동기 시제품이 나오자

26) 최희필, “원동기가 생산되기까지,” 「인민들 속에서」 47, pp.204-14.



이들을 김일성은 직접 살펴보면서 필요한 사항을 하달하고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까지 지적하곤 하였다. 일단 만족할 만한 시제품이 완성되자 김일성은 전국에 원동기를 보급할 양으로 원동기 생산량을 할당해주면서 생산 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했다. 원동기제작 기업소가 원동기 생산목표를 지시한대로 달성하자 김일성은 이내 원동기를 이용한 다양한 농촌기계화 제품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훗날 완성된 이들 제품들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표 6〉 공연 및 전시장 현지지도

| 년 도  | 현 지 지 도  |
|------|--|
|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총련 조직들이 보내온 선물 시찰(5.11)</li> <li>• 새로만든 승용차 시찰(12.2)</li> </ul>  |
| 1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협주단 예술인 출연 음악무용종합공연관람(2.8문화회관)(1.12)</li> <li>• 평양시 예술인 출연 음악·무용종합공연관람(8.3)</li> </ul>   |
| 19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키스탄 예술단 공연관람(1.22)</li> <li>• 만수대 예술극장 공연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각국 예술인 련환공연(4.14)</li> <li>— 국립연극단 예술인 혁명연극(4.16)</li> <li>— 뽕수가 〈마좁췌〉 가무단 공연(10.31)</li> <li>— 소련 국립로씨야우랄인민합창단공연(12.13)</li> </ul> </li> </ul> |
|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건설 성과전람회(8.19)</li> </ul>   |
| 19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만든 농기계 전시회(9.23)</li> </ul>   |
| 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계화연구소 등에서 제작한 농기계시찰(11.26)</li> </ul>  |
| 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계화연구소 제작 농기계등 시찰(10.12)</li> </ul>   |
| 19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제작된 룬전기계들과 건설기계 시찰(4.18)</li> </ul>   |
| 19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소비품 전시회장(6.2)</li> </ul>  |
| 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련합영제품 전시회장(4.19)</li> </ul>  |

### III. 결론 : 김일성 「현지도」의 특색

김일성과 현지에 있는 「일군」 또는 주민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놓고 의논하고 문제해결방식과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는 현지도의 방식은 과거 김일성이 지휘하던 항일빨치산부대의 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사회주의체제 운영방식에 맞게 개정한 통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김일성은 이러한 사업방법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군중로선”이라고 정리하고 이러한 「군중로선」 또는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1960대초 북한식 사회주의관리체제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및 대안의 사업체제는 이러한 「군중로선」에 입각하여 김일성이 현지도를 통해 창안해낸 사업방식이었다.<sup>29)</sup>

1980년대 김일성의 북한사회 각 부문에 걸친 현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옷사람인 김일성이 각급 기관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한 연후에, 이곳에서 발생,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담당자들과 함께 의논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군중로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협동농장이나 공장·기업소, 건설사업장, 문화·교육 및 상업시설등 현장에 있는 「일군」이나 주민들은 그들의 사정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들이어서 이들과 마주앉아 당면한 문제를

27) 서대숙, 서주석(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141.

28)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298.

29) 학자에 따라서는 군중노선을 대중운동과 구분하여 청산리방법은 대중운동으로, 대안의 사업체제는 군중노선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류길재, “「천리마 운동」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p.58-59.

논의하는 것은 중앙의 당간부나 관료 또는 전문적인 연구자들보다 한결 구체적이고 현장감있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30)</sup> 그러나 문제는 현지도를 과거 항일유격대식의 소규모의 단위에 대한 사업 지도와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sup>31)</sup> 예컨대 수십명 단위부대가 직면한 문제와 리 또는 군단위의 협동농장이 당면한 문제는 그 성격이 같을 수 없으며 더욱이 일개 단위 사업장에서 제기된 문제나 그 해결방식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특정 공장이나 기업소에 대한 현지도의 경우에도 단순작업장이 아닌 대규모 연합기업소등이 대상 기관이 된다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의 건설도 소규모 마을 저수지 건설공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지도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문에까지 과거 유격대식 사업방식인 현지도를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일성이 현지도 현장에서 농지확대를 위하여 전체 산간지역에 「다락밭」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여 산지를 황폐화시키고, 홍수때 흘러내린 토사가 강 수위를 계속 높임으로써 농작물의 수확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경험은 현지도의 즉흥성과 비현실성을 보여준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결과적으로 「현지도」는 특정 사업현장에서 채택한 사업방식과 사업목표를 상황과 조건이 상이한 여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30) 일찍이 김일성은 관료들의 이같이 미숙한 실무능력을 혹독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공열, 「북한 관료체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3), p.69.

31) 김일성은 현지도와 노동자들의 열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고 중앙 「일군」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집중지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김일성이 최종적으로 이들의 지도결과를 현지에 내려가 평가하였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김일성 개인의 통제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143-44.

32) 「다락밭」건설의 폐해는 이밖에도 댐의 저수능력을 저하시켜 전력생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오길남, 「북한정권의 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안정수 외 5인, 「북한정권의 행동: 분석과 전망」 (서울: 문우사, 1993), p.181.

않은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과오를 범하였다.

김일성의 「현지지도」의 또다른 사업방식은 김일성이 현장에 내려가 지도하면서 그 기관이 달성해야할 합당한 사업목표가 결정되면 즉시 예정된 목표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많이 초과달성할 것등 사업의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다하게 책정된 목표는 노동자, 농민, 관계부문 「일군」들이 아무리 열성적으로 직업에 임하더라도 각 사업장에 속한 「일군」들의 미숙한 숙련도, 비전문성 등으로 미루어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33)</sup>

이처럼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제시된 목표가 국가 또는 각급 단위의 계획능력을 초과함으로써 부닥치는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은 초국가적, 범국가적 지원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과도책정된 목표를 관철하도록 하였다. 김일성의 현지 「교시」가 하달되면 모든 사업의 우선 추진 순위가 변경되고 현지지도를 통해 결정된 추진 과업에 배타적인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모든 조직적 선동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정된 목표 달성에 매진하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 동원방식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 조정, 통제되는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현장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중요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지출과 자재 및 설비의 특별공급, 그리고 필요한 노동력의 비상동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였다. 룡성기계총국의 대형압축기 제작 명령이나 홍남비료공장의 현대화작업, 대성산 유원지 조성공사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 대자연개조사업,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 축성등이 모두 이러한 배타적이고 비정상적인 공급지원체제 및 「속도전」과 같은 강도높은 노동력 동원방식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였다. 결과적으로 계획된 여타 사업은 지연되거나 폐기됨으로써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기본 구도를 기초부터 흔들어 놓아 90년대 경제난 심화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김일성은 그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한 김정일을 대동하고 현지지도를 실

33) 여영무, “망명북한건축설계사 김영성 폭로,” 신동아(1992. 8), p.473.

시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고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과 함께 4월 25일의 인민군 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인민군 구분대를 방문하여 현지도도를 실시하곤 하였다. 김일성의 승계자로서 김일성의 통치술을 현지에서 직접 받아배우게 하고 함께 현지도도에 나섬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김정일이 자연스럽게 전수받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군경력이 없는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고 군 최고통수권자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는 김일성의 이같은 군부대 현지도도가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군부대에 대한 현지도도 이외에 김일성은 김정일과 함께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장등의 현지도도를 실시하였다.<sup>34)</sup> 만수대의사당 (1984)이나 만경대학생소년궁전(1989)등의 준공식장에도 함께 나타나 건물의 구조나 내부시설들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실시하였고 「평양시궐도전차화」 제1단계공사장(1991) 및 총련합영제품전시회장(1991)등을 둘러보면서 현지도도를 실시하였다.

실제 1980년대 평양시 건설이나 각종 교육·문화 상업시설 건설사업부문과 문화, 예술사업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함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도도는 전반적인 목표제시나 부분적인 개선점 또는 평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김정일은 지방 각지의 공업, 농업부문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지도를 함으로써 김일성의 통치행태를 활발히 계승하기 시작하였다.<sup>35)</sup> 다만 김일성은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 건설현장 등 의·식·주 생활과 직결된 부문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현지도도함으로써 이들 부문에서 발생,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내는데 치중한 반면 김정일은 주로 문화, 예술등 선전, 선동부문과 경공업

34) 김정일은 1981년 5월 김일성을 수행하여 묘향산지구 개발 공사현장을 「실무지도」라는 이름으로 시찰한 이후 1991년까지 60여차례의 실무지도도를 실시하였다. 통일원 편, 「김정일우상화 사례집」(서울: 통일원, 1992), pp.7-9.

35) 「조선중앙년감」은 1991년호부터 김정일의 현장 「실무지도」를 「현지에서 지도」란 용어로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부문, 평양시 건설이나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과 같은 체제우상화 작업부문등에 집중적으로 현지도도를 실시함으로써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지도도의 행태는 김일성 생존시 아버지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김정일 나름의 배려와 계산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으나 부자간의 대조적인 현지도도의 모습은 향후 북한체제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 빨치산 출신의 김일성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사회를 절대적 권위로써 통치하였다. 그의 명령과 지시는 곧 법이고 진리로 통하였고 이는 북한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으로 승화되었다. 농촌과 도시, 공장·기업소와 학교, 전시장, 유원지, 군부대등 북한 전지역을 김일성은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현지도도를 실시하였다. 그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던 그의 통치술의 시험대상 지역이 되었다. 산적한 문제들도 그가 방문하기만 하면 신통하게 해결되고, 그가 언급했듯이 자신이 마음먹으면 안된 일이 없었다. 2천만 북한주민들은 현지도도를 나온 김일성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인정받고 위로받고 감격해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와 같이 김일성 「현지도도」의 실상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일성의 실체는 이와는 거리가 있었다. 1980 - 90년대 김일성의 현지도도는 표면적으로는 「군중로선」의 형식을 따르는 듯이 보였지만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sup>36)</sup> 하라는 「군중로선」의 본질적 내용과는 상이한 양태를 보여주었다. 김일성은 단지 현지 담당자들로부터 문제의 내용만을 전해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지도도를 통해 김일성은 모든 일에 대해 언제나 완벽한 이해와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비추어졌고 반면에 일반 주민은 물론 고급당료들은 김일성 앞에서는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하고 게으른 존재로 부각될 뿐이었다. 이처럼 김일성의 반세기에 걸친 통치행태의 모순이

36)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14.

축적될수록 북한체제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김일성 이후시대 북한이 당면하게 될 문제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일성 통치시대 최대의 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여겨졌던 현지지도로 인해 야기될 것이다.